

# PhD Thesis Abstract

## 한일/일한 동시통역에 나타난 비유창성 요소에 관한 연구

이선화(Seonhwa Lee)

중앙대학교

### 1. 연구 배경 및 목적

국제회의 통역사가 뉴스를 보도하는 아나운서와 같이 완벽한 발화를 수행하는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다.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동시통역에서는 제한된 시간 안에서 적절한 표현을 찾아내는 작업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동시통역의 어려움으로 인해 통역사는 동시통역하는 중간중간에 발화를 수정·반복하기도 하고, 머뭇거림이나 휴지 등을 두기도 한다.

Garnham(1985: 206)은 통역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을 ‘비유창성(disfluency)’이라고 말하며, “가장 흔히 나타나는 비유창성에는 망설임(hesitations), 휴지(pauses), 머뭇거림(ums and ahs), 수정(corrections), 잘못된 시작(false starts), 반복(repetitions), 삽입(interjections) 등이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동시통역 시 통역사의 발화에서 유창한 통역을 방해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을 ‘비유창성 요소’라고 명명하고, 이들 요소 중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항목으로 ‘수정’과 ‘반복’, ‘머뭇거림’, ‘휴지’를 선정하였다. 이 네 가지 비유창성 요소가 통역 현장에서 전문통역사에게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실험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 연구 방법

### 2.1. 분석 대상연구 참여자 및 원천텍스트 정보

본 연구에서는 동시통역의 비유창성 요소를 수정과 머뭇거림(간투사와 장음화), 휴지, 반복, 네 가지로 선정하여 언어방향 및 발표형태, 발화속도로 유형화하고, 각 요소에 대한 발생 빈도와 발현 양상을 분석한다.

분석을 위해 본 연구자가 ‘비유창성 요소’로 정의하고 설정한 네 가지 분석 대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비유창성 요소와 정의

비유창성 요소	정의	
수정	통역사가 발화 도중 특정 단계에서 정보처리에 실패하였거나 각 단계에서 정보처리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상위 단계로 되돌아가는 과정 (Gerver, 1975) 통역사가 자신의 발화에서 오류나 부적절함을 감지한 후 원래 발화의 구조적 속성을 '전이'하는 행위 (Levelt, 1983)	
반복	음소 혹은 음절, 낱말, 낱말군을 되풀이해서 말하는 것 (심현섭, 2003)	
머뭇거림	간투사	발화속도의 변동, 휴지 출현 현상, 통역 시 사이를 메우기 위한 ‘에-’, ‘아’ 등과 같은 소리 (遠山, 2007)
	장음화	새로 발화할 부분을 처리하는 동안 단어의 마지막 모음이나 자음 등 특정 음절을 길게 발음하는 것 (Martellini, 2013)
휴지	조음활동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것 (최문선, 2015)	

### 2.2. 연구 참여자 및 원천텍스트 정보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국제회의 모습을 반영하여 국제회의 통역사에게 온라인 회의 플랫폼 Zoom을 이용하여 동시통역을 의뢰하고, 연구자는 이들의 통역을 녹음하는 형태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통역을 녹음한 이후에는 녹음한 음성파일을

연구자가 모두 전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원문의 음성파일과 대조하면서 통역 시 발생한 비유창성 요소를 모두 표기하여 각 요소를 분석하였다.

실제 동시통역에서는 통역의 경험이 없거나 짧은 경우 통역 스킬의 미숙함으로 인하여 비유창성 요소가 다발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의 실험에 참여시킨 통역사는 모두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을 졸업한 후 10년 이상(평균 16.4년)의 경험을 가진 숙련된 전문가로 구성하였다. 또한, 실험에 사용한 원천텍스트는 다음과 같다.

표 2. 원천텍스트 정보

구분	ST	제목	분야/ 발표형태	발표 시간	발표자	발표 일
한국어 ST	A1	제75차 유엔총회 문재인 전 대통령 기조연설	외교/ 원고 있는 ST	15분 54초	문재인 전 대통령	2020. 09.21
	A2	한중일 스마트시티 웹세미나	경제/ 원고 없는 ST	08분 27초	이정훈 서울시 대표	2020. 08.19
일본어 ST	B1	第75回国連総会におけ る菅総理大臣 一般討論	외교/ 원고 있는 ST	11분 06초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	2020. 09.26
	B2	日中韓スマートシティ ーウェブセミナー	경제/ 원고 없는 ST	08분 00초	요나쓰 마사후미 도쿄도 대표	2020. 08.19

### 3. 분석 결과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언어방향별 비유창성 요소의 발생 빈도와 발표형태별 비유창성 요소의 발생 빈도, 발화속도별 비유창성 요소의 발생 빈도, 크게 이 세 가지 항목으로 설명할 수 있다.

먼저, 언어방향별 비유창성 요소의 발생 빈도는 아래 표와 같다.

표 3. 언어방향별 비유창성 요소

비유창성 요소		언어방향		언어방향별 차이	언어방향별 합계	
		AB동시통역	BA동시통역			
수정		194	172	22	366	
반복		67	56	11	123	
머뭇거림	간투사	529	543	14	1,072	1,731
	장음화	320	339	19	659	
휴지		148	172	24	320	
합계		1,258	1,282	24	2,540	

위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본 실험에서 통역사들은 AB동시통역과 BA동시통역에서 큰 차이가 없이 양방향 균형 잡힌 통역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발표형태별 비유창성 요소의 발생 빈도이다.

표 4. 발표형태별 비유창성 요소

비유창성 요소		발표형태		발표형태별 차이	발표형태별 합계	
		원고 있는 ST	원고 없는 ST			
수정		236	130	106	366	
반복		90	33	57	123	
머뭇거림	간투사	612	460	152	1,072	1,731
	장음화	345	314	31	659	
휴지		196	124	72	320	
합계		1,479	1,061	418	2,540	

발표형태별로 살펴본 비유창성 요소도 언어방향별 결과와 마찬가지로 머뭇거림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였으며, 그다음으로 수정, 휴지, 반복의 순으로 빈번하게 나타났다. 발표형태별로 가장 큰 차이를 보인 항목은 간투사로 152회의 차이가 발생했고, 가장 적은 차이는 31회 차이가 나는 장음화였다.

전체적으로는 비유창성 요소가 원고 있는 ST에서 1,479회, 원고 없는 ST에서 1,061회 발생하여 약 40% 더 많이 발현되었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동시통역시 통역사가 원고 없는 ST를 더 유창하게 통역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발화속도별로 살펴본 비유창성 요소 중 수정에서는 발화속도와 뚜렷한 관계성은 찾아볼 수 없었으나 연사의 발표형태에 따라 부분적으로 연사의 발화속도가 빨라지면 통역사의 수정이 발생했다. 특히 모국어로의 통역에서는 연사의 발화속도가 느린 구간에서 적합성 수정의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다. 반복에서는 다섯 명의 통역사를 모두 합한 빈도 자체가 낮아 연사의 발화속도와 비교할만한 유의미한 수치는 아니었다. 머뭇거림에서도 직접적인 관계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 휴지의 경우, 원고 있는 ST에서 일부 연사와 통역사의 발화속도가 느린 구간에 휴지가 다수 존재했으나 나머지 원천텍스트에서는 공통점을 찾기 어려웠다.

이 밖에도 본 연구에서는 통역사의 통제권 밖에 있으면서 동시통역의 비유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간적 요소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시간적 요소로는 총 발화시간을 비롯하여 연사의 발화속도를 기초로 산출한 평균 발화속도 및 발화율, 상대적 발화속도, 그리고 연사의 발화를 1분 단위의 구간으로 나누어 분석한 발화속도의 구간별 변화이다. 이들 요소에 따른 통역사의 대응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통역사의 수행 능력 및 텍스트의 퍼포먼스 등을 분석하였다.

먼저, 발화시간은 네 명의 연사와 모든 통역사가 거의 비슷하였고, 평균 발화속도는 한국어 통역에서 일본인 연사의 평균 발화속도가 상당히 빨랐음에도 통역사 모두가 동시통역에 적합한 안정적인 한국어 발화속도를 유지하며 통역했다. 발화속도의 최고구간과 최저구간의 비교를 통해서도 한국인 통역사들이 균형 잡힌 양방향 동시통역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었다. 그중에서도 BA동시통역에서 연사의 발화속도에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었다. 통역사의 정보처리 지표가 되는 발화율은 통역사 평균이 92%로 모든 통역사가 높은 발화율을 유지하고 있었다. 상대적 발화속도비에서는 연사를 1로 보았을 때 전체 통역사의 평균 비율이 A1에서 1.4, A2에서 1.04로 일부 통역사에게 과밀하게 정보가 들어갔거나 생략이 많은 경우가 있었다. B1과 B2에서는 모든 통역사가 전 구간에서 대동소이하여 모든 통역사가 안정적인 동시통역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4. 결론

통역사가 비유창성 요소를 모두 제거하고 통역한다면 아나운서와 같이 거의 완벽에 가까운 발화를 구사한다고 평가받을 수 있겠으나 인간의 인지 활동 중에서도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동시통역 영역에서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통역사가 기계가 아닌 이상 거의 실시간으로 연사의 언어를 다른 언어로 전환하며 정확하게 내용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수정이나 반복, 머뭇거림, 휴지와 같은 비창성 요소가 발생하는 것은 피할 수 없으며, 연사의 발화에도 이와 같은 비유창성 요소는 들어갈 수밖에 없다. Susan & Michael (2001: 292)은 ‘Uh, um’과 같은 담화 표지가 있을 때 오히려 목표 단어를 더 잘 인식하므로 담화 표지의 사용과 반복은 의도적인 커뮤니케이션 전략이라고 하였으며, 남길임(2011: 115-116)도 비유창성 현상은 구어를 구어답게 만들어주는 요소이며 구어에 자연스러움을 부여하는 요소라고 한 바 있다.

따라서 동시통역에서는 비유창성 요소를 완전히 제거한다기보다는 통역사 각자가 스스로의 비유창성 요소를 점검하고, 가장 취약한 요소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훈련 및 이를 줄이기 위한 전략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비유창성 요소에는 연사의 발화속도 및 원천텍스트의 난이도가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주지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는 전문통역사뿐만 아니라 통역 학습자에게도 적용된다. 통역 학습자들은 통역 훈련 단계에서부터 비유창성 요소를 의식하고, 각자의 발화 습관 및 통역 기술을 점검하고, 학습자 간 상호 피드백을 통하여 전문성을 길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보들은 통역 교수자에게도 통역 교육 시 원천텍스트의 발화속도, 텍스트의 난이도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학습자들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비유창성 요소가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분석한 네 가지 비유창성 요소는 통역 평가자의 입장에서조차 아직까지는 통역사의 유창성을 평가하는 도구로 사용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지만, 이러한 실험 결과 등을 바탕으로 명확한 판단 기준이 책정되고 나아가 자동평가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동시통역의 유창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 시간과 비용도 절감될 수 있으며 평가 결과에 대한 객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것이다.

## 참고문헌

- 남길임. (2011). 「담화유형에 따른 한국어 비유창성 연구」. 『담화와 인지』 18(3): 115-138.
- 최문선. (2015). 「학습자의 통역에서 나타나는 휴지(pause) 분석」. 『한국통번역교육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5(1): 3-9.
- Garnham, A. (1985). *Psycholinguistics: Central Topics*, London/New York: Routledge.
- Gerver, D. (1975). A psychological approach to simultaneous interpretation. *Meta* 20(2): 119-128.
- Levelt, W. J. M. (1983). Monitoring and self-repair in speech. *Cognition*, 14: 41-104.
- Martellini, S. (2013). Prosody in simultaneous interpretation: A case study for the German-Italian language pair. *The Interpreters' Newsletter* 18: 61-79.
- Brennan, S. E. and Schober, M. F. (2001). How listeners compensate for disfluencies in spontaneous speech. *Journal of Memory and Language* 44: 274-296.
- 遠山仁美・松原茂樹. (2007). 「英日同時通訳者発話におけるフィラーの出現と聴きやすさとの関係」. 『通訳翻訳研究』 7: 39-50.

### [인터넷 자료]

-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第75回国連総会における菅総理大臣一般討論演説 2021.09.26. [https://www.mofa.go.jp/mofaj/fp/unp\\_a/page4\\_005200.html](https://www.mofa.go.jp/mofaj/fp/unp_a/page4_005200.html) (2021.10.20. 검색)
-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홈페이지 <http://gsit.hufs.ac.kr/>
- 한국 청와대 홈페이지 제75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 2021.09.22. <https://www1.president.go.kr/article/s/9213> (2021.10.20. 검색)
-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 주최 한중일 스마트시티 웹세미나 2021.08.19. <https://tcs-asia.org/en/main/> (2021.06.02. 검색)

본 초록은 ‘이선화. (2022). 한일/일한 동시통역에 나타난 비유창성 요소에 관한 연구’를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

***Author's email address***

snada@hanmail.net

sna1004@cau.ac.kr

***About the author***

Seonhwa Lee earned her PhD from the Graduate School of Chung-Ang University. Her research interests include interpreting and translation, especially simultaneous interpreting and machine translation.